

북스

Books

조선 엘리트의 훈맥 '세종대왕 가문...'

세종의 다섯 번째 왕자인 이경여 가문... '세종대왕 가문'의 500년 야망과 교육은 위대한 균형, 세종의 사상과 철학을 계승해 조선을 부흥시킨 역사를 한 가문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책은 세종의 직계 엘리트들의 훈맥을 통해 조선사회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보여준다. 이밖에 사대부 여인이 임금에게 한글 편지로 감사와 향의 뜻을 전한 사실과 세종의 여인이 비구니가 된 사연 등 잘 알려지지 않은 흥미로운 역사도 서술하고 있다.

<어문학사> 1만4천원 / 김대성기자 bigkim@

상위 1%의 성공과 부의 비결 결정적 시기+끝없는 노력이 '열쇠'

아웃라이어 글래드웰 지음·노정태 옮김

캐나다 하키 대표팀에는 1~3월에 태어난 선수들이 유독 많다. 이 기간에 태어난 선수들의 비율이 40% 이상인데 반해, 7~9월은 20%, 10~12월은 10%에 머물고 있다.

해답은 '티핑 포인트' '블링크' 등을 발표한 베스트셀러 작가 말콤 글래드웰의 신간 '아웃라이어(outliers)'에 있다.

저자는 성공의 열쇠를 찾기 위해 비틀즈 등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꿈을 이룬 사람들을 추적한다. 또 그 과정에서 일정한 규칙이 있음을 밝혀낸다.

캐나다 하키팀에 1~3월생이 많은 이유는 캐나다의 1월1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해아려 팀을 꾸리기 때문이다. 1월1일에 태어난 아이와 12월31일에 태어난 아이가 경쟁하는 셈이다.

다시 말해 성공으로 이어지는 특별한 기회를 얻어낸 사람이 성공을 거두게 된다는 얘기이다. 저자는 '무엇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는 성경 마태복음의 구절을 인용하며, 성공은 적절한 시기와 환경의 덕을 본다

여행자의 편지 박동식 글·사진

독특한 감성의 잡지 '페이퍼'에는 다양한 스타일의 필인이 포진해 있다. 그 중에서 여행 관련 글과 사진을 실는 박동식의 글은 한번쯤 자신을 들여다 보게 만드는 울림이 있다.

15년 경력의 여행가 박동식이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과 길 위에서 느낀 생각들을 묶어 산문집 '여행자 편지'를 펴냈다.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



빌 게이츠



비틀즈

도,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을 떠돌며 그가 보낸 편지는 모두 마흔 한편. 책은 '만남', '그리움', '희망', '인생', '행복'이라는 다섯가지 테마로 잔잔히 이야기를 건넨다.

이 책은 쏟아지는 여행서들과는 차별점이 확실하다. 여행 정보같은 것은 아예 없다. 여느 책처럼 여행 중 만난 사람들에 대한 단상과 에피소드로 채워지지도 않았다.

온전히 그 나라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마음 깊숙이 그들의 삶을 이해하려 하는 유목 여행자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삶과 죽음, 기쁨과 슬픔을 전하며 잔잔한 울림을 준다.

또 마이크로소프트사를 공동 창업한 빌 게이츠와

폴 앨런, 스티브 발머의 공통점도 탄생 시기에서 찾고 있다. 이들은 모두 1953~1955년생이며, 이들이 20~23세의 황금기를 보냈던 시기가 바로 개인 컴퓨터 혁명이 일어난 1975년이다.

성공 확률이 높은 결정적인 시기에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가 꿈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저자는 베를린 음악 아카데미 학생들의 연습 시간을 비교해 성공의 가장 중요한 열쇠를 찾아냈다. 이 학교에 재학 중인 바이올리니스트 중 엘리트 학생은 모두 1만시간 이상을 연습에 몰두했다.

1960년, 비틀스는 독일 함부르크의 한 클럽으로부터 초대를 받았다. 1년 반 동안 그들은 매일 8시간씩 연주했다.

이밖에 다른 성공 요인으로 '문화적 유산'을 꼽고 있다. 특정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이 문화적 유산에 따라 어떤 쪽으로는 성공 가능성이 크고, 어떤 분야에선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김영사> 1만3천원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따뜻하고 아련한 마흔 한 편의 이야기

특히 수차례 개인전을 가질 정도로 내용이 쌓인 그의 사진 실력이 포착해낸 아름답고 의미있는 풍광들이 책 읽는 재미를 더해준다. 특히 그의 영감이 가장 많이 잡힌 세계 각국의 아이들의 모습을 비롯, 살아온 세월이 담긴 '사람'들의 생생한 표정은 감동을 준다.

저자는 '그 어떤 삶도 저울질 될 수 없는 것이지만 너무 사소한 것까지 비교하며 살았던 우리가 이제 스스로의 길을 가야 할 때'라고 이야기하며 '여행을 꿈꾸다면 지금 떠나라'고 권한다.

<북하우스> 1만 3천원 /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새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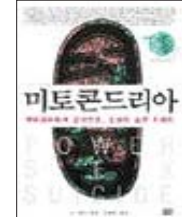


▲성의자연사=미국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의 계통생물학자 애드리언 포사이스가 생명체들이 보여주는 다양한 색스의 형태를 둘러싼 관찰력으로 기술했다.

▲미셀 오바마=미국 첫 흑인 퍼스트 레이디 미셀 오바마. 시카고에서 자란 어린 시절부터 프린스턴과 하버드에서의 대학생활, 일류법률 회사에서 촉망받는 인재였던 그가 공공의 영역으로 일대 방향을 전환한 일 등 그의 삶을 전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전쟁과 평화=지구상 최고의 배짱교로 약명높은 김정일과 그를 둘러싼 북한 최고 권력자들의 계보를 분석했다. 북한 전문가 장정민씨는 김정일의 언행과 건강 그리고 교양과 지식을 비롯해 후계자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근황 등 김정일의 실체를 밝히고 핵을 정치적 외교수단을 활용하는 그의 비장할 전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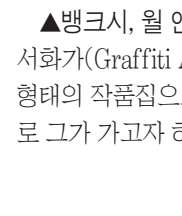
▲미토콘드리아="미토콘드리아가 없었다면 지구의 생명체는 여전히 세균만이었을 것이다." 생물 시간에 들어왔을 이 낯선 주인공이 바로 생명체 진화의 숨은 지배자 우리가 쓰는 에너지의 거의 전부를 생산하는 생명체 미토콘드리아의 모든 것, 곧 생명과 진화의 모든 신비를 담았다.



▲전세계 여성들이 꿈꾸는 로망 더 주얼=샤넬, 반 클리프, 앤 아펠... 주얼리의 보고장 유럽의 세계적 주얼리 브랜드들의 탄생과 발전, 주얼리 디자이너들이 제품을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열정과 노력을 국제적 주얼리 디자이너 김성희 씨가 섬세한 취재와 탐문으로 기록했다.



▲노인의 전쟁=존 스칼지의 2006년 휴고상 장편부분 후보, 존 캄벨 신인상 수상 작. 주인공 페리는 75세 이상만 뽑아 주는 이상한 군대 우주 개척방위군(CDF)에 입대한다. 그는 각계 각층의 여성 늙은이를 만나고 '늙은 방귀쟁이'란 모임을 꾸린다.



▲뱅크시, 윌 앤 피스=얼굴을 가리는 화가로 유명한 세계적인 낙서화가(Bankie Artist) 뱅크시. 그의 작품과 짧은 글이 담긴 사진집 형태의 작품집으로 그가 지내온 길과 현재 서있는 자리, 그리고 앞으로 그가 가고자 하는 지향점이 어디인지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여자 셋, 두 번째 선택=불안정한 서른여덟의 여성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 주는 책. 행복을 기실리언구소 김은영 소장은 좀 더 넓은 세상을 보고도 응원해주며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가꿀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대인동업부동산 (02)223-1140, 5210, 2100, 011-602-2532

금보부동산건설팀 (02)261-8949, 011-602-2233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062)973-9174, 016-757-8800

현대공인중개사 (062)371-1900, 010-2006-0115

금당부동산 (062)223-7400, 016-632-5659